##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5~5/3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 김성철 | 오타쿠 |
| 2 | 요가수트라(아헹가요가시리즈8)아헹가 선생이해설한요가경 | B.K.S.아헹가/현천 | 선요가 |
| 3 | 무비스님의 신심 명강의(개정판) | 무비 스님 지음 | 조계종출판사 |
| 4 | 사랑하는 사람 못만나 괴롭네(고승열전14)만공스님 | 윤청광 | 우리출판사 |
| 5 | 반야심경 무슨말을하고있나:산스크리트어본과8종의한역본 | 관정 | 알아차림 |
| 6 | 마음닦는법 | 김재웅 지음 | 용화 |
| 7 | 운명을바꾸는법(정공법사요범사훈강설) | 정공 법사/이기화 | 불광출판부 |
| 8 | 디가니까야(3)길게설하신경 | 각묵 옮김 | 초기불전연구원 |
| 9 | 법구경(작은경전1) | 석지현 옮김 | 민족사 |
| 10 | 마하시사야도의아리야와사법문(큰북여섯)성자의집경해설 | 마하시 사야도 | 불방일 |

책세상

# “내가 찾은 것은 행복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



나를 찾아가는 여행
최석원 지음/김보니 옮김
사유수 펴냄/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와는 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저자가 한국에 있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현대불교신문사서  함께 일한적이 있다. 저자는 기자일이 아니라,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던 걸로 기억한다. 잠깐씩 사내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만난 저자에 대한 기억은 겉모습은 나와 같은 한국인이지만, 유창한 영어실력에 부러움을 느낀것이 있었다. 물론 상대적으로 한국말은 내가 더 유창했지만. 이번에 펴낸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가까이서 몰랐던 저자의 내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캐나다서 태어나 하키와 버거쉑을 사랑한 저자는 한국에 들어와 판소리와 동양철학에 매료되고 낭만적인 출가까지 꿈꾸지만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것 같다. 계속되는 도전과 실패에도 포기 않고 ‘내려놓아야 알게 된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내면의 지혜를 체험하고 마침내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다. 때로 포기하고 싶은 삶의 역경 속에서 스승을 만나고 간절함 속에 터득한 삶의 평화와 지혜를 얻는다. 이 책은 바로 이런 과정들을 씨줄과 날줄로 튼실하게 묶었다. 하나의 마음도 헛되게 빠져 나갈 수 없도록 말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동국대 선학과 대학원 시절 불교학과 교수 해주스님이 저자에게 일러준 말씀이다. 한국서는 아이들도 다 아는 속담이라는 걸 저자는 나중에야 알았다. 당시엔 스님이 저자에게 젊은 나이에 날개를 힘차게 쭉쭉 펼치라고 허락한 것 같이 들려서 매우 기뻤다고 한다. 현재 저자의 나이는 불혹인 50세이다. 캐나다의 한 대학서 강의 하며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제는 중년이 되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다고 고백한다. 캐나다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 동포인지라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다른 얼굴 모양과 피부색, 유교적인 가풍, 음식문화의 차이 때문에 당혹스런 일을 겪으며 소외감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첫걸음으로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1991년도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그러나 한국서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말도 서툴고 글은 거의 쓰지 못

**젊은날 불안전한 정체성에 혼란 느껴**
**어머니 통해 대행스님 가르침을 접해**
**힘든 상황이 저자 성장시켜준 밑거름**

했으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했다. 그때 저자는 완전히 얼치기였다고 스스로를 평한다.

캐나다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인도 아닌 불완전한 정체성. 이러한 불확실성은 저자가 꿈꾸고 도전한 전공과 직업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서울대서 영문학 학사를 취득하고 다음에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禪學科)로 전교-전과했다. 그러다가 국악, 그 중에서도 판소리의 매력에 빠져 도전했으나, 실력의 한계에 부딪혀 언론사로 방향을 바꾸었다. ‘The Korea Herald’ 신문기자와 몇 군데 언론사에서 일을 하다보니 어느듯 한국에서 총 12년을 살게 되었다. 20대 청춘을 한국서 거의 보낸 셈이다. 그러다가 가족에 대한 애틋함과 자신을 키워준 캐나다의 자연이 그리워 결국엔 캐나다로 다시 돌아갔고 지금은 대학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오랜 방황의 닻을 내렸다. 이런 과정에서 아픔도 많았다고 한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밀고 나가지 못하고 소위 대문의 안과 밖 경계선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던 방황의 매순간은 저자에게 엄청난 불안감과 좌절감을 불러왔다. 그런 중에 한 줄기 빛이 있었으니 바로 부처님 법과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었다. 어머니를 통해 한마음선원과 인연이 되어 어려울 때마다 대행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 왔다. 인생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경계들은 반드시 그 숨은 뜻이 있으며 견딜 만한 것이라는 가르침이었다.

어릴 때부터 핸디캡으로 작용한 모호한 정체성과 힘든 상황이 오히려 결국엔 저자를 성장시켜준 밑거름이 되었다. 여리고 유약한 천성은 훨씬 다이내믹해지고 유연성 있는 성격으로 변했다. 〈법화경〉 이야기처럼 자신 안의 보배를 찾은 것이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부족한 글이지만 나의 지난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펴낸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에 한국서 펴낸 〈나를 찾아가는 여행〉은 지난 2018년 캐나다서 영문으로 먼저 출판돼 그 해 〈FINALIST 출판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번 한국판은 뉴질랜드 메시대서 공부한 김보니 작가의 탁월한 번역 실력과 소탈하고 친근한 그림으로 책의 지루함을 달래준 만화가 강병호 작가의 의기투합에서 비롯됐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나는 기억 저 편으로 숨어버린 어린 시절 일들을 되살리기 위해 부모님께 많은 질문을 했다”며 “어떤 때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존경한다”고 감사함을 표한다.

# “마음챙김, 어려운 길 헤쳐낸 자신 존중하는 힘”



스스로를 존중하는 연습, 마음챙김
정화 지음
북드라망 펴냄/1만7천원

뇌과학과 진화생물학 성과들을 불교 이론과 접목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해온 정화 스님의 두 번째 마음강의를 묶은 책이다. 공부공동체인 〈남산강학원〉과 〈감이당〉서 2019년에 진행한 강의를 기반으로 새롭게 썼다. ‘결핍’ ‘자기극복’ ‘증여’ ‘공부와 글쓰기’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글과 ‘왜 생각길을 바꾸어야 하며’ ‘차이를 긍정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챙김’을 통해 다른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한다.

힘을 빼고 몸과 마음서 일어나 사라지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챙김’을 하다 보면, 익숙한 이미지가 변하고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않던 현상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험은 만들어진 허구의 이미지에 속지 않을 단초를 마련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탓이 아닌데도 자신을 탓하면서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있는 자신이 보일 것이고, 그것으로 아파했을 자신을 안아줄 수 있게 되면 어려운 길을 헤쳐 온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생각하는 ‘마음챙김’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스스로를 존중하는 연습이 될 수 있을까? 저자는 “인지된 사건들은 기억정보를 바탕으로 무의식 층이 만들어 준 이미지를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그렇다. 그런데 기억된 정보는 학습과 환경 등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으므로,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을 확률도 아주 높다”며 “예를 들면 자기 탓으로 여기는 것이 잘못된 학습 등에 의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그 결과를 합리화시키면서 탓하는 습관을 강화해 온 것일 수도 있다. 마음챙김이 필요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한다.

**마음씀을 체화시키는 것이 곧 수행**
**‘자신존중’과 ‘자기극복’은 구분해야**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과 ‘자기극복’의 구분에 대해서도 저자는 〈금강경 사구게〉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자기 극복이란 틀린 전제로 자신을 보는 안목을 내려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근거를 반조해 보는 학습과 ‘마음챙김’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왜 〈금강경 사구게〉를 생각으로 익히는 것이 온갖 보배를 보시하는 것보다 그 공덕이 더 크냐고 물었어요. 〈금강경 사구게〉 가운데는 ‘부처를 보려고 하고, 부처의 법문을 들으려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는 게송이 있는데, 그 것을 나름대로 풀면 ‘부처를 보려 하는가/어쩌지 부처는 형색이 없는데/법문을 들으려 하는가/어쩐다 부처는 법문을 한 적이 없는데/허니, 보고 들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게나/그 마음이 확 빠져나가면/보이는 것마다 부처요/들리는 것마다 부처의 법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저자는 계속 설명을 이어간다. “이 사구게가 뜻하는 내용은 그대의 빈 마음인 다보여래가 온갖 부처를 빚으면서 법문의 비를 내리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금강경 사구게〉를 생각으로 이어 가다 자신의 다보여래를 만나게 된다면 그 공덕은 비할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보는 (그릇된) 전제가 확 빠져나갈 때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자신을 존중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으니, 틈틈이 그냥 알아차리는 연습인 마음을 챙기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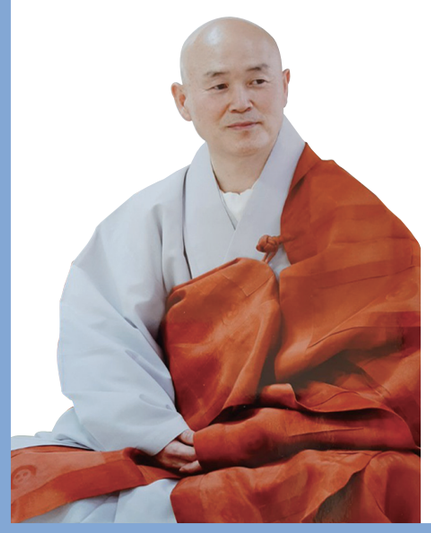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저자는 책 속에서 수행에 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풀어간다. “수행은 늘려 이야기하자면 팔만대장경이 될 것이고, 줄이면 욕망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마음씀을 체화하는 일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다”며 “일하다 보면 잘하려는 욕망이 앞서, 일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습관을 키우기도 한다. 그러므로 바람 없이 그냥 청소 등을 하는 마음씀이 빈 마음을 체화하는 수행이 되고 그렇게 익힌 마음씀이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재된 타인의 시선에 의해 들뜨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씀이 익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마음씀을 체화시키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3차분 13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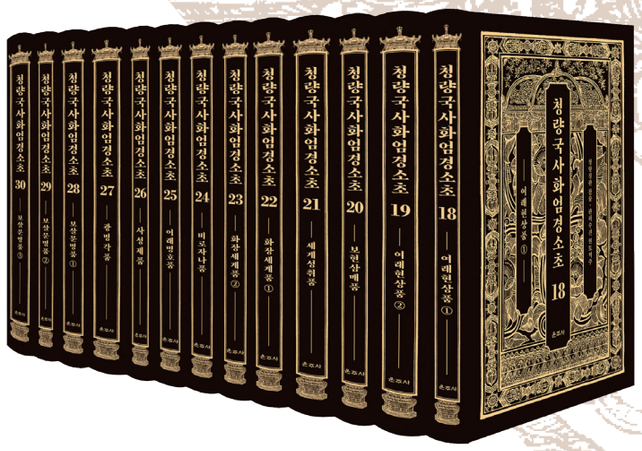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30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1차분 「화엄현담」 10권(2020년), 2차분 세주묘엄품 7권(2021년)
드디어 3차분(2022년) 제2품 여래현상품부터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여래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제10품 보살문명품까지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